23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1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은 21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제해보도록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5장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왕 바로에게 경고하시고 또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공과는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과정의 시작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 첫 내용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13장 17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찌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놓으시며 인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연의 또한 특별한 목적없이 이유없이 막연하게 인

도하시는 그러한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각각 사정에 맞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동일할 수는 없고 또한 삶의 모습가운데서 인도함을 받는 것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을 가장 잘 아셨음으로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은 지름길은 블레셋 땅을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로 간다면 일주일 채 되지 못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살려서 또한 우리가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우리의 길들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거야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야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자 합니다

만약 블레셋 땅의 길로 갔더라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블레셋 민족들은 살기를 가지고 또한 아주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막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셔서 그들을 홍해 앞으로 그리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기를 좀 잡아놓으시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평안함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였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쉽게 납득이 가셨겠습니까?

왜 지름길을 놔두고 저 멀리 그것도 홍해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그 길로 인도하셨을까?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었던겁니다

시편 73편 2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3절 말씀 2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은 공중 권세 받은 자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서 길을 잃고 헤매이게 마련일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들입니다

낮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어두움이고 또한 그 어두움에 있다보면 우리는 잠을 잘 수 있

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 길을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앞으로 조금 넘겨보시면 37편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구원받고 마땅히 해야할 길은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길입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또한 주님께 우리의 길을 맡길 때 주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비록 그 길이 당장은 이해가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주님께 우리의 길을 기꺼이 맡기는 자들이 되어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당장은 어려운 가운데 처해있을찌라도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돌아가는 길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안심이 되죠 만약 우리가 초행길을 간다고 했을 때 길을 모르는 곳에 나 혼자 운전하고 간다면 참 답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꼬불꼬불하고 알지 못하는 길이지만 그 지리를 잘 아는 누군가가 옆에서 인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맡기고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또한 보호하시는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그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출애굽기 13장으로 다시 돌아가보시면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21절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취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올 때 그들의 여정 가운데서 낮에는 항상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쳐왔던 그 땅의 조건은 낮에는 너무나 더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너무나 추웠죠?

만약 구름이 그들을 가리워주지 못한다면 그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밤에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해주지 않고 또한 그들을 더웁게 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추위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되 보호하심 가운데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할 때가 있습니다

낮의 구름이 우리를 시원케 해줌을 또한 밤의 그 불기둥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줌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해야할 될 것이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주시는 또한 내가 누리는 축복이 너무나 많음에도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와같이 보호하심 가운데서 인도하시죠

그래서 구름기둥이 떠나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되는 것이며 불기둥이 이동하면 그 기둥을 따라서 이동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심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참으로 너무나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며 또한 항상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잊으려하기 때문에 아니면 무감각함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치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셨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찬양가운데 주만 바라볼찌라 그런 찬양이 있죠?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평강을 잃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음을 생각해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죠?

너무 큰 축복 가운데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왕이 마음을 바꿔서 그들의 모든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해왔던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입니다

그 많은 애굽의 군대들뿐만 아니라 그 병거들을 이끌고 오는 그 군대들의 소리를 들을 때 이르라엘 민족의 마음은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생각해보시죠. 그 많은 말 발굽들 수레 소리들 군인들의 함성들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들은 너무나 외축이 되었을 것이며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며 또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보다는 당장의 환경과 눈앞에 펼쳐진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출애굽기 14장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와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로 인한 부르짖음이 아니었죠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원망이 섞인 그런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또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것이 나았을 뻔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모두들 이러한 경험들을 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구원받고 나서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구원 안 받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건데” 하고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처지를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자기의 그러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해본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가를 금방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았고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항상 원망하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이 없음으로 원망했습니다

또 먹을 것을 그렇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땅에 있는 그러한 네피림의 후손들 그러한 아람 자손들과 같은 거인들의 모습들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환경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우리의 처지를 비관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침륜에 빠져있을 때 또한 믿음 가운데 힘을 잃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새 힘을 얻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그러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주님의 역사 가운데서 힘을 얻습니다

전도집회를 듣는다든지 또한 전도집회 가운데 새로 구원받는 영혼들을 본다든지 정말 구원받는 모습 변화받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한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원망이 찬양으로 바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고 또한 그 원수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손을 내민다고 해서 바다를 가를 수는 없죠

또한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어드렸지만 바다를 가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우리는 가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잊고 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와도 함께

해주십니다

또한 나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자하며 또한 우리를 인도해주시고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게 하시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바다 사이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나가게 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을 삼켜버릴 것 같은 그 바닷물도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그들에게 벽이 되었습니다.

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호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만약 벽이 없었다면 저 멀리서 애굽 사람들이 활을 쏴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아까 읽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러한 능력 많으신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참으로 단호하십니다.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는 결코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며 마귀는 철저히 심판 받아야할 존재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입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구원했지만 바로의 군대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며 마귀의 세력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해야할 자가 마귀가 아님을 생각해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되며 또한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될 자가 사람이 아님을 생각해봅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완전히 분리되게 하십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죠

홍해바다를 건너버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과 또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가운데로 지나간 것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과 구별될 것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땅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죠?

침례 받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이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나감이 마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침례를 받고 새로운 모습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모습을 상징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이 모습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침례받는 모습을 교훈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애굽은 세상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는 세상에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가운데 빠져 살 수 없으며 또한 그 세상 가운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처럼 우리는 이미 홍해바다를 건너버렸습니다

애굽의 생활을 동경한다든지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될 것인가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제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는 구별된 사람임을 생각하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구원받고 홍해바다를 건넘으로 애굽과 구별되는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는 섭리 가운데서 보호하심 가운데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실족할 수도 있고 또한 낙망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으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음도 생각해보았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함을 얻고 또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혹 아직도 그 마음이 애굽에 남아있다든지 이 세상에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교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또한 이제 새사람으로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새사람으로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옛 것들에 대하 동경이 있다든지 또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봄으로 마음가운데 고민이 되고 낙망이 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운데 동참케 해주시고 복음이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우리 또한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곳에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주님의 크신 자비하심과 능력 가운데서 잃어진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

올 수 있는 크신 자비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